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날카롭고 차가워 보이는 철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은빛의 메탈 자체로 멋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기와 건축물, 장식품으로 탈바꿈하여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2019년 <세아가족>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철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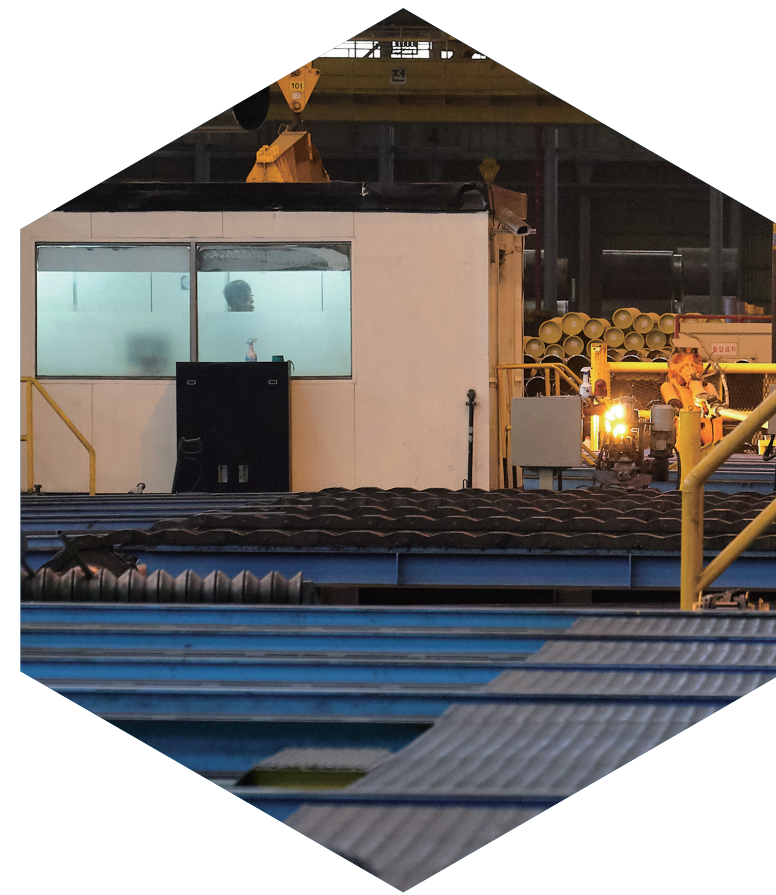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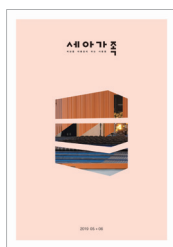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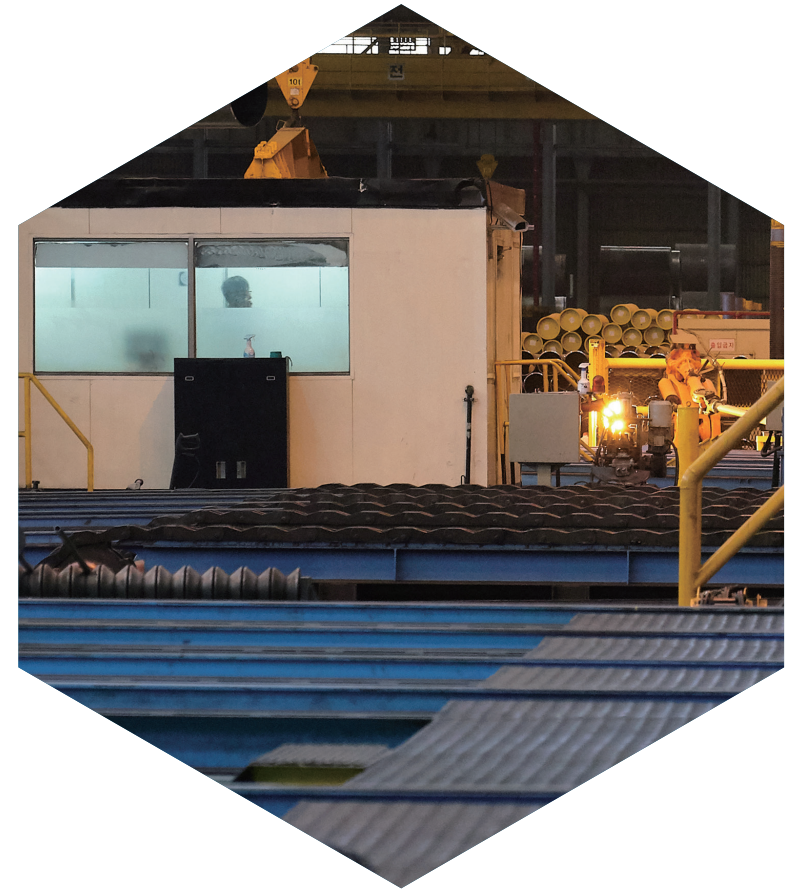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과 공장



우리는 섬세함을 다룬다



공간을 짓는 건축가와 공장을 짓는 세이엔지니어링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부분부터 전체 설계까지 많은 것을 고려해 공간을 만듭니다.
이번 호 <세이가족>은 섬세함을 다루는 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 리 는 섬 세 함 을 다 룬 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지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yujin.lee@seah.co.kr
02 6970 0093

〈세아가족〉사보 기자

안미경 세아제강자주 재경파트 (서울)
노승미 세아제강 인사팀 (서울)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포항)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군산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순천)
정민수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창원)
황미라 세아제강 영남영업파트 (부산)
이정준 세아베스틸 기획팀 (서울)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 (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 (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 (창원)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군산)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서울)
여환진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포항)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충주)
윤가영 세아 FS 인사기획팀 (서울)
안광수 세아 FS 업무지원팀 (평택)
정재원 세아 ESAB 재경팀 (창원)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부산)
최경민 세아 M&S 경영지원팀 (서울)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 (서울)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대전)
최은누리 세아네트웍스 인제개발팀 (서울)

CONTENTS



- 04. 프롤로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 공간
- 06. 세상과 함께**
재료의 물성을 이용해 공간을 짓다
—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위진복 · 홍석규 건축가
- 14. 세아와 함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짓다
— 세아엔지니어링 플랜트부문장 안경식 상무
- 20. 세아 포커스 I**
외벽 그래피티를 통해
노후화된 공간을 재탄생시키다
- 24. 세아 포커스 II**
철강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도약 의지를 다지다
제20회 철의 날 기념식
- 26. 세아 포커스 III**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성장을 지원하다
세아해임학술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 28. 철의 장인**
전기रो와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강팀 현종력 계장
- 34. 글로벌 리포트**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 태국 시장을 공략하다
— 포스세아타이 (Pos-SeAH Thailand)
- 38. 팀플레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품개선을 이뤄내다
—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세아제강 은상 수상팀
- 44. 최과장의 심리상담**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 48. 세아 패밀리**
두 아이와 함께 다시 경주를 찾다
— 세아 ESAB 장비팀 김지건 대리 가족
- 52. 도구 열전**
단순한 기능,
그 이상의 스테이플러
- 54. 세아 뉴스**
- 56. 사우 동정**
- 57.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발행일 2019년 6월 20일(통권 381호) ISSN 2636-1787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Studio KENN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을 담아내는 그릇, 공간

—
Space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

우리는 매 순간 공간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의 벤치와 가로수 그늘에 따라 공원을 즐기고 휴식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달라진다. 또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쉬는 공간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노는 방식이 달라진다. 하물며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지루하거나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스탠퍼드대학교 멜라니 러드(Melanie Rudd)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성당의 천장이나 웅장한 건축물을 바라보는 것은 별이 쏟아질 듯한 밤 하늘이나 그랜드 캐니언의 깊은 골짜기처럼 숨 막힐 듯한 대자연을 마주하는 것과 비슷한 경외심을 느낀다고 한다. 나아가 사람들은 웅장한 광경을 마주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과 남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대한 지각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공간에서 느낌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키고 그를 통해 또 다른 경험과 새로운 관점을 얻는 셈이다. 오늘날 설계자와 건축가는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해 색다른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공간에서 새롭고 차별화된 경험을 얻고 있으며, 인간의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 공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참고 서적 : 알랭 드 보통 『행복의 건축』, 콜린 엘러드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재료의 물성을 이용해 공간을 짓다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위진복 · 홍석규 건축가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는 건축 재료의 물성을 활용해 구조와 원리를 드러내는 디자인을 한다. 건축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그래서 그들의 건축물에는 구조부터 문고리 하나까지, 모든 것에 당위성이 존재한다. 고려대학교의 복합문화시설 파이빌99, 필리핀 최후의 대피소, 삼성동 Stressed Tower, 유니버시아드 수영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위진복 · 홍석규 건축가를 만나 그들의 건축 철학에 대해 들어본다.

재료의 물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위진복 건축가는 자신들의 건축 철학을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에 비유해 설명했다. 데카르트가 사물의 본질을 외연(extension)으로 봤다면, 반대로 라이프니츠는 내연(intension)으로 본다. 그들의 건축 철학은 라이프니츠와 맞닿아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하고, 정량화되어 있는 걸 선호하죠. 예를 들면 몇 층짜리 건물인지, 사무실이 몇 평인지 사고 자제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주변 환경이 얼마나 쾌적한지, 교통 체증과 소음은 없는지 등등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지만 공간을 짓고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죠. 단적인 예로 실내 온도가 24도라고 했을 때, 공간을 반으로 자르면 한쪽 공간이 12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정량화하는 걸 넘어서서 물체가 가진 정량화되지 않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는 모든 물질에 근거가 있고, 무한한 잠재성이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재료의 물성을 끊임 없이 탐구하고 그 속성을 활용해 작업물을 만든다고 했다. 그들은 모든 물질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건축 재료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홍석규 건축가는 자신들의 건축물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최대한 물성을 활용한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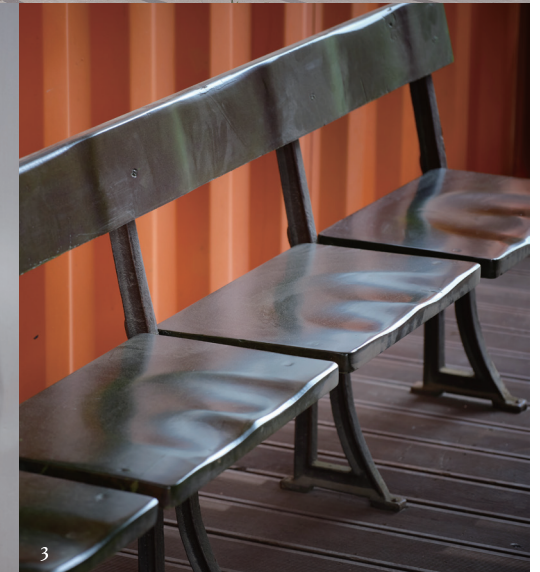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π -ville99(이하 파이빌99)는 38개 컨테이너를 쌓고 서로 연결해 만든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컨테이너를 일자로 쌓을 수도 있었지만, 그 건 컨테이너가 가진 물성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죠. 건축자재로서 컨테이너는 이미 완벽한 모듈 구조체로, 잘 쌓고 이음새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m 컨테이너를 쌓을 때 절반을 밖으로 걸지도록 쌓고 연결하면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죠. 이러한 성질을 활용해 컨테이너를 최대한 들고 나도록 배치, 외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동 Stressed Tower는 콘크리트, 현재 작업 중인 해방촌 신흥시장 쉼은 ETFE (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의 물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공간은 사용자에게 의해 만들어진다

파이빌99는 기획 단계부터 학생들의 아이디어 교류와 창작활동, 창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이에 컨테이너 모양만 내는 자재보다는 실제 사용되었던 폐컨테이너를 사용해 공간 자체에도 진정성을 더했다. 건물의 개방적인 구조는 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돕는다. 또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 1 - 파이빌99는 컨테이너의 문을 열고 바닥재를 덧대어 테라스 공간을 확보했다.
- 2 - 홍석규 건축가가 폐컨테이너의 울퉁불퉁한 단면을 만지며 설명하고 있다.
- 3 - 벤치는 과거 대강당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 재활용했다.





4

“건축가는 재료의 물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속성을 활용해 건축물을 짓습니다.”



5

- 4 - 파이빌99를 함께 걷는 위진복 · 홍석규 건축가의 모습
- 5 - 파이빌99의 꼭대기에는 망원경을 통해 앞을 멀리 내다보는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더해서 공간 활용에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 15개의 스튜디오와 강당, 오픈플랜 스튜디오, 아이디어 카페, 3D프린터 오픈랩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옥상에서 펼쳐지는 공연 ‘파이빌 라이브’부터 모퉁이 벤치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퉁이 영화관’까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위진복 대표는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은 가장 훌륭한 사용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업하면서 ‘이 공간을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옥상을 활용하는 부분은 고려했지만, 모퉁이 영화관을 열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죠. 또한 기존의 고려대학교 석조 건물들과 대비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배너를 걸고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라는 공간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요?”

건축가의 섬세함은 ‘소통’이다

건축가의 섬세함은 물질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다. 물질적인 측면은 문고리부터 고층 빌딩의 마스터플랜까지 다 챙겨야 한다는 점이고, 사회적인 측면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가가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을 수행하면서 전반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소셜커뮤니케이터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비슷하죠. 혹자는 건축가를 두고 예술가라 지칭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아티스트 군보다 유연하게 사회와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작가들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철학을 완성해 나가지만, 건축가는 자본가, 작업자, 사용자와 소통하고 건축물의 사회적 역할까지 고려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섬세함은 작업을 통해 폭도 넓어지고 깊어진다. 케이스마다 소통하는 사람이나 문제상황도 달라지지만,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도 해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관념적인 틀에서 벗어나 ‘건축물’ 자체로 평가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일례로 영국 니콜라스 그림쇼가 만든 세인트버리 슈퍼마켓이 건축상을 받았습시다. 우리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가 지은 상업적인 건축물도 건축물 자체로 온전히 평가받는 날이 오겠죠? 나아가 건축가는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짓는다는 틀에서 벗어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공간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공간 브랜딩’도 해보고 싶습니다.”



건축가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세아엔지니어링은 그룹사가 철강 기술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습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짓다

세아엔지니어링
플랜트부문장 안경식 상무

세아엔지니어링 플랜트부문은 1994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 세아제강 설비 정비 및 유지 보수공사를 수행하면서 첫발을 뗐다. 이후 설비·전기·소방·건축 등 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각종 면허를 취득했다. 현재 공장 건축은 물론 제강·제철 산업 플랜트의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아그룹이 철강 기술과 제품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을 만드는 세아엔지니어링 플랜트부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플랜트를 건설하다

일반적으로 플랜트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생산시설이나 공장’을 말한다. 세아엔지니어링 플랜트부문은 산업설비의 제작·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경식 상무는 세아엔지니어링 플랜트부문에 대해 소개했다.

“과거에는 해양·석유화학 플랜트까지 진출하였으나 현재는 공장건설을 전담하는 토목건축팀과 그룹사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설비기술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20여명의 엔지니어들이 공장건축 및 제강·제철 등 산업플랜트 부분에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등 업무를 일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그룹 관계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역량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상무는 플랜트 사업이 생소한 일반인들을 위해 집과 공장으로 비교해 쉽게 설명해주었다. 집과 공장의 1차 목적은 외부환경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다만, 집은 거주하는 사람을, 공장은 제조설비와 자재, 제품 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함, 편리성까지 고려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상무는 종종 현장에 방문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건축물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설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여러 불편함이 있어도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 미비한 부분을 지적해주는 분들,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고맙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부터 환경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다

안 상무는 1989년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 포항공장에 입사해 세아그룹에 몸담아 왔다. 세아제강을 비롯한 그룹사 공장건설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30년간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없을 정도다. 그는 자신이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가 중요했지만, 그중에서도 2010년 건설한 SeAH Steel UAE 공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SeAH Steel UAE 공장은 UAE의 라스 알 카이마(Ras al Khaimah) 지역 사막에 건설한 것으로, 삼성엔지니어링사의 UAE 현지 ‘타크리어(TAKREER) 프로젝트’에 납품 결정과 동시에 공장 건설이 진행되어 사전검토

1 - 세아제강 포항공장 중경2공장을
살펴보는 안경식 상무의 모습
2 - SeAH Steel UAE 공장





3

- 3 - 중경2공장의 크레인 주행용 빔은 부산파이프 감만동 공장에서 철거한 철재류를 재사용하였다.
- 4 - 세아엔지니어링 플랜트부문을 소개하는 안경식 상무의 모습

없이 돌관공사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40~50도에 육박하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24시간 주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납품 일자를 맞추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공정의 일정이 맞지 않아, 우선 공장을 짓고 메인 프레스 설비 안착을 위해 공장 지붕의 일부를 해체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했죠. 이때 설비 반입을 위해 가교 작업이 이뤄져야 했는데, 이미 시공된 설비 기초의 일부를 사막의 모래로 메워 설비·설치용 장비(Mobile Crane)와 설비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의 공장진입을 유도하는 번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시공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관심과 주인의식에서 섬세함을 찾다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부터 시작된 강관의 역사가 이곳 세아제강 포항공장에 묻어있다.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H-beam으로 지은 JCO 공장을 제외하곤 모두 세아제강에서 만든 강관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강관을 주 건축자재로 사용한 이유는 세아제강의 모태가 부산철관공업이고, 지금도 세아제강의 주요 사업이 강관이기 때문이죠. 특히 창업주이신 고(故) 이종덕 회장님께서 회사를 처음 세우실 때

당시 부산철관공업 초창기 감만동 공장을 손수 설계하시고 강관을 주재료로 사용하셨던 뜻을 이어나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감만동 공장을 철거할 때, 철재의 일부를 가져와 이곳 세아제강 포항공장 중경2공장을 건축 시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모기업의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안 상무는 창업주 고(故) 이종덕 회장이 직접 공장을 설계한 것처럼 세아엔지니어링의 섬세함은 ‘관심’과 ‘주인의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 해도 무심히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아엔지니어링 플랜트 사업부문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룹사를 포함한 국내투자환경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력 없는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에 따라 실속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외형성장보다는 고객에게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아엔지니어링 플랜트부문은 고객사의 투자 시 Before Service 제공 및 컨설팅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며, 점차 확대가 예상되는 환경설비투자에 대비하는 노력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



4



세아 포커스 I

SEAH

외벽 그래피티를 통해 노후화된 공간을 재탄생시키다

세아브랜드관리위원회 활동의 일환인 '세아 그래피티(벽화) 프로젝트'가 세아인은 물론 지역 주민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노후화된 공간이 벽화를 통해 감각적인 예술 공간으로 변화했기 때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시작으로 강화병원과 세아제강 포항공장에 이르기까지, 세아 그래피티 프로젝트를 엿본다.

단순한 공장 아닌 예술 공간의 탄생

'세아 그래피티 프로젝트'는 세계적 그래피티 아티스트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지저분한 공장 벽면이나 덕트 등 철강 산업 현장을 예술적이고 심미적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은 물론, 노후화되어 지역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벽면에 회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시각적 즐거움이 배가 된 것은 물론이고, 임직원들의 원하는 공간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이 훨씬 높아졌다. 더불어 세아의 공간이 인근 지역 사회의 명소가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공장 외벽

세아 그래피티 프로젝트의 첫 테이프를 끊은 곳은 지난해 6월 작업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대형단조공장 외벽은 어린 소녀를 등에 태운 북극곰이 빙하가 녹아내린 바다 위에서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모습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 커뮤니티인 'POW!WOW! (파우와우)'의 작품으로, 작가 선정부터 콘셉트 및 메시지 개발 등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집단과 함께 수개월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다. 특히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파우와우의 선임 디렉터 카메라 하다르가 메인 작가로 참여해

더욱 특별하다. 카메아 하다르는 인물과 자연,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생동감 있는 묘사와 자연의 색채를 활용해 선보이는 작가다. 그는 군산공장의 대형단조공장 외벽에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지구온난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환경 보호 메시지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그래피티 프로젝트

세아공장 그래피티 프로젝트는 세아 그룹 내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펼친 바 있다. 지역 노후공간 개선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화병원 외벽에 그래피티 작업을 진행했다. 강화병원은 인천시 강화군에서 오랜 기간 의료 활동을 이어 온 대표 기관이었으나, 노후화된 외관 시설과 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존폐위기를 겪고 있었다. 만약 강화병원이 폐원할 경우, 강화지역 주민들, 특히 고령 어르신들이 적시에 정상적인 진료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세아브랜드관리위원회는 세아 공장 그래피티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지역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게 되었다.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 '로얄독'과의 작업을 통해 노후화된 병원 외벽에 회화적 요소를 가미해 미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그래피티를 통해 단순한 공장이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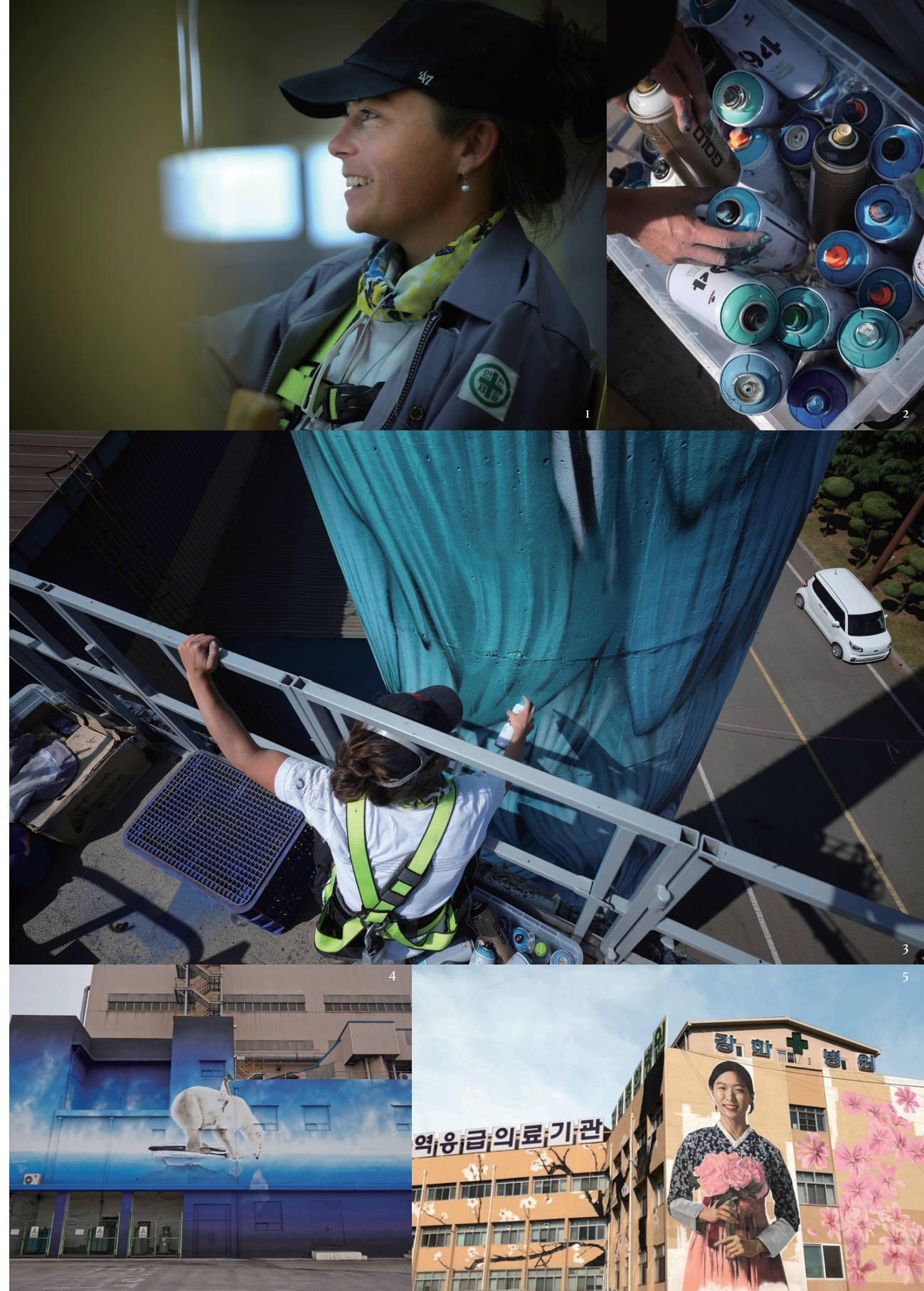
창공으로 비상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덕트

올해 5월에 진행된 세아제강 포항공장 벽화는 사용하지 않는 덕트에 세계적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아델 르노가 새의 깃털을 형상화해 작업한 것으로,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작은 파랑 앵무새의 깃털을 패턴화한 디자인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델 르노는 포항공장 덕트 그래피티에 사람들이 환경 및 조류 보호에 대한 의지와 경각심을 갖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세아제강 포항공장의 기존 컬러와 밝은 분위기와도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세아 그래피티 프로젝트는 철강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라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회사 직원만이 아닌 지역 전체를 고려해 기획한 점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아제강 포항공장 덕트는 세아인이 매일 지나다니며 보는 공간입니다. 그런 만큼 세아인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고, 세아인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 그래피티 느낌이 다를 텐데, 그런 것도 세아인이 느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세아인과 지역 주민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세아 그래피티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세아 그래피티 프로젝트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

- 1 - 세아제강 포항공장 덕트 그래피티에 참여한 아델 르노의 인터뷰 모습
- 2 - 아델 르노의 손에는 작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 3 - 크레인에 올라 덕트 그래피티를 작업하는 아델 르노의 모습
- 4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대형단조공장 외벽 그래피티
- 5 - 강화병원 그래피티 작업 모습





철강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도약 의지를 다지다 제20회 철의 날 기념식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철의 날 행사가 6월 4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렸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및 철강업계·수요 업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세아제강 생산2팀 최상수 차장과 세아창원특수강 제품연구1그룹 이권영 선임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철강업계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철강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대식 용광로에서 처음 쇠물이 생산된 6월 9일을 '철의 날'로 제정해 2000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수요 산업 변화에 대응해 초경량·고강도·초내열 소재 개발 등 철강소재의 선제적 혁신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수요산업 침체, 환경규제 강화 등 철강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재도약을 위해 환경과 안전 부문에 대한 선제적 투자, 철강소재 혁신,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일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협의를 통한 업계 수출 애로 최소화, 인도·아세안 등으로서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역 맞춤형 수출품목 다양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통상마찰과 더불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로 인하여 철강 산업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철강업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2021년까지 대기방지시설에 1조 5천억 이상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환경규제 준수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화된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료의 투입, 제품의 생산 및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을 통한 철이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다.

철강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수상

이날 행사에서는 철강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9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포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명단에 세아제강 생산2팀 최상수 차장과 세아창원특수강 제품연구1그룹 이권영 선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리며 세아그룹의 위상을 높였다.

세아제강 생산2팀 최상수 차장은 중경2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함께한 모든 세아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회사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세아창원특수강 제품연구1그룹 이권영 선임연구원은 우선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지만, 다른 팀원들과 함께한 공적으로 본인만 상을 받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회사에 주는 상을 대신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올해도 세아창원특수강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

- 1 - 세아제강 최상수 차장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고 있다.
- 2 - 세아창원특수강 제품연구1그룹 이권영 선임연구원의 수상 모습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성장을 지원하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지난 5월 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세아타워에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27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이 1992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행사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대학생 25명에게 2년간 4개 학기 등록금 지원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1992년부터 27년째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세아타워에서 27기 대학교 장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세아 가족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해마다 3월이 되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모바일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에 친숙한 청년 세대가 좀 더 편리하게 장학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상담받을 수 있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비영리 재단으로서는 드물게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자 중 대상자는 대개 6월 안에 선발된다. 장학금 대상으로 선발된 대학생 25명은 1인당 연 최대 1천만원 규모로, 2년 동안 4개 학기의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이때 국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사전 감면받은 학생의 경우, 생활비 성격을 띤 자기 계발비로 감면액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27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이순형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생 모두가 장차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능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이번 장학금을 지급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기업 경영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정신을 구체화한 창업주 해암에 의해 1992년 첫선을 보였다.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과 교육 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와 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향상과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을 갖고, 당시 이종덕 명예회장의 사재로 출연한 3억원을 기본 재산으로 해 공식 발족했다. 재단의 역점 사업인 장학사업은 초기에는 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1996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IMF 외환 위기가 닥쳤던 1998년에는 가계의 어려움을 해하려 장학금 수혜 인원을 중·고등학생 50명, 대학생 38명 등 모두 94명으로 확대해 눈길을 끌었다. 재단 설립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장학생(중학생~대학원생)은 1,149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약 53억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금번 대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된 25명을 포함한 총 78명의 장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장학금 수여 외에



철강 소재 발전에 기여한 공적자를 대상으로 ‘세아해암 학술상’을 시상하고, Post-Doc 및 개발도상국의 국내 유학생을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구 활동 생태계 조성 과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뜻깊은 장학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

- 1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27기 장학증서 수여식 기념사진
- 2 - 수여식에 참석한 이순형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 3 - 이순형 이사장이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匠

전기रो와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1제강팀
현종력 계장

현종력 계장은 1996년 당시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23년 동안 전기로에서 고철 용해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태도, 타고난 열정과 쉽 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용해직은 나의 천직'이라 거침없이 말하는 그의 용강보다 더 뜨거운 열정 속으로 들어가 본다.

人



생산공정의 첫 단추, 용해

현종력 계장은 1996년 4월 당시 기아특수강(현, 세아 베스틸)에 입사했다. 특수강에 관심이 높았던 찰나 기아특수강 채용 공고를 봤고, 지원 결과 합격에 이르렀다. 현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1제강팀 전기로2호기에서 근무한다.

“입사 후 처음 맡은 업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용해였습니다. 고철을 전기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를 활용해 녹이는 것이죠. 이후 23년째 용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철을 용해하고, 용해된 용강(쇳물)을 안정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세아인이 된 이래 현 계장이 ‘용해’를 잊은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을 터. 고철 용해 전문가가 자나 깨나 용해 생각 뿐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여기에 그가 하는 업무가 전체 공정 중 첫 공정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저는 용해 공정에서 생긴 용강을 불순물 제거 및 탈산 작업을 통해 안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질의 용강을 후공정인 정련 공정에 인계하면 제 역할이 끝나죠. 이때 용강의 불순물 제거와 탈산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후공정에서 작업 시간이 늘어나거나, 부재료를 투입해야 하는 등 여러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 제 역할을 잘 해내야 후공정까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어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포기 대신 전력 질주

현 계장은 보통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해 근무를 준비한다. 전기로에 도착해 그날 생산해야 할 강종 리스트의 현재 공정 상황 등을 살핀 후 하루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작업해야 원활한 생산이 가능한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다.

“저는 업무와 관련해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쇠와 돌을 열리게 한다’, 즉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목표가 높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와 집중력으로 전력을 다하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용해 공정이 전체 생산 원가의 7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원가 절감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력원 단위 및 전극원 단위 감소를 통해 목표한 원가 절감을 달성했고, 그때 아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치열하게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친 후 동료와 소주 한잔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현 계장. 군산공장의 1제강팀 전기로2호기 A조 계장인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조원의 힘든 점과 고민거리, 기쁜 일 등을 함께 나눈다.

“종종 회사 일이 힘들 때는 기장님, 팀장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저의 현재 상황을 공유해 도움을 받으며 헤쳐 나가죠. 또한 회사 밖에서는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1 - 제어실에서 화면과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현 계장의 모습

2 - 전기로에서 용해된 쇳물은 다음 공정을 위해 래들(Ladle)이라는 용기에 붓는다.

최고의 철강 장인이 되기까지

현 계장이 고철 용해 담당자로 근무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다. 짧지 않은 지난 세월은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지난 세월을 통해 철강 장인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용해 업무를 하다 보니 용해 공정 중 발생하는 슬래그 상태를 보고 용강의 불순물 함유, 온도, 탄소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강 샘플을 채취했을 때 맨눈으로 대략적인 탄소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죠.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항상 용강을 눈으로 확인한 후 분석값과 대조검토한 것이 저를 용해 전문가로 만든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강 공정이 자동화되기 이전인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철강 산업 현장에서는 용강 계측기가 없어 작업자가 맨눈으로 용강을 확인했다. 용기에 담긴 용강에서 불꽃이

튀는 형상을 보고 용강의 탄소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취련사(吹鍊事)라 불렀고, 취련사는 최고의 철강 장인으로 인정받았다.

“저 역시 한때 취련사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최근 철강 산업 현장을 보면 컴퓨터와 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취련사 같은 철강 장인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강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평준화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요.”

열정과 노력은 나의 힘

현 계장은 올해로 23년째 세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실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장기근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의 장기근속 비결은 무엇일지 궁금했다.

“용해직은 저의 천직(天職)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제가 보람을 느끼고 열정을 갖게 해줍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고 위험할 때도 있지만, 제강인으로 일할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 중 자신의 직업을 천직이라 여기는 이가 얼마나 될까. ‘용해직은 나의 천직’이라 자신 있게 말하는 그가 인상 깊은 이유다. 그동안 세아의 제강인으로서 열심히, 잘 달려왔다고 자평하는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제강팀, 더 나아가 세아베스틸의 발전을 위해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열정 넘쳤던 선배’라고 기억됐으면 합니다. 또한 후배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아베스틸을 위해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고 현장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것,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땀속까지 제강인인 현종력 계장. 스스로 다짐하듯 말하고,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건네는 그에게서 철강 장인으로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기로 가동 모습

4 - 전기로 현장을 나가기 전에 방열 토시와 앞치마, 방진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항상 착용한다.

5 - 현 계장과 동료와 함께 산소 랜스 파이프를 활용해 철스크랩을 용해하고 있다.

6 - 현종력 계장의 작업복에 새겨진 그의 이름

7 - 많은 부분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전기로에서 온도 및 용강내 탄소 측정하는 작업은 사람이 직접 수행한다.



태국은 전 세계 12위,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가다. 2015년 세아특수강과 포스코 사우스아시아가 합작해 설립한 포스세아타이는 냉간압조용 선재(CHQ Wire)를 생산하며 성장성이 높은 태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태국 내수 시장점유율 확대는 물론 일본 자동차 3사 양산 공급을 통해 '글로벌 판매 확대'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이익 창출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영업물류팀 하정래 팀장에게 포스세아타이의 현재에 대해 들어본다.

Siracha Chonburi Thailand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 태국 시장을 공략하다

포스세아타이(Pos-SeAH Thailand)

글. 포스세아타이 영업물류팀 하정래 팀장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하다

포스세아타이는 성장성이 높은 태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세아특수강과 포스코 사우스아시아가 75 대 25 비율로 투자해 만든 합작 법인으로, 양사의 기술력과 경험 등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아특수강의 자동차용 고품질 선재 가공 노하우와 일본 고객사와의 오랜 거래 경험은 경쟁사와 비교해도 그 이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의 합작을 통해 안정적인 원소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원소재는 일본 자동차사에 품질인증을 받은 상태라 초기 포스세아타이가 태국 내 일본 고객사에 영업활동을 하고, 제품 공급을 할 때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이처럼 두 회사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세아타이는 고품질 냉간압조용 선재(CHQ Wire; Cold Heading Quality) 제품을 생산해 태국 현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냉간압조용 선재는 볼트와 너트, 스크류 등 체결 부품으로 만들어져 자동차나 산업기계, 전자산업, 건설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을 말합니다. 2016년 9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연간 2만8천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110km 떨어진 촌부리 주 시 라차(Sri Racha)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램차방 항구와 일본 자동차사·부품사 공장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태국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을 넘보다

태국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가로, 1960년대부터 정부가 일본 자동차사를 유치하는 등 자동차 산업을 전략 및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램차방 항구가 위치한 동부 춘부리 등지에는 '이스턴 시보드(Eastern Seaboard)'라는 공단을 설립해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릴 정도입니다. 2018년 태국 자동차 생산량은 약 216만 대며, 그중 일본계 자동차사의 비율이 90%를 차지하고 생산량의 약 50%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사는 태국을 아시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세아타이는 태국 내수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일본계 자동차의 시장 진입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 확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초기, 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매출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 일본계 고객사의 판매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체로 보자면 올해부터 닛산·미쓰비시사의 인증이 완료되어 일본계 Tier1 회사로서 양산·공급 중이며, 하반기에는 도요타, 혼다사의 인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국 로컬계 회사와 일본계 Tier2·3부품사에도

신규 개발해 판매량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법인 설립 초기에는 공장의 정상 가동에 집중했고, 2017년에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최대 생산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는 매출 확대 및 수익성을 개선을 통해 경영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 일본 Top3 자동차사 도요타, 혼다, 닛산에 양산·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계 고객사의 품질 요구수준에 적합한 제품생산, 품질관리, 납기관리를 실시하여 물량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현재 닛산은 양산공급을 시작하였으며, 19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인 도요타와 혼다사의 인증 역시 좋은 결과를 얻길 희망합니다.

영업 물류를 담당하는 저 역시 일본계, 로컬, 한국계 등 태국 내 신규 고객사를 개발하고, 기존 고객사 관리를 통해 판매량 확대 및 수익성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업무로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입, 수출 그리고 내륙 운송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 적재를 개선 및 물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반적인 물류비 절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I - 하정래 팀장과 영업물류팀에 함께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

하정래 팀장이 전하는 태국 문화

물 축제 송크란 & 절후이 가득한 아시랑



태국에는 세계 10대 축제에 손꼽히는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의 축제, 송크란입니다. 새해를 축하하기 위한 전통 축제로, 매년 태국의 설날인 4월 13일 전후로 주요 도시에 열립니다. 축제 기간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데, 그 이유는 죄와 불운을 씻고 새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4월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서로에게 물을 뿌려 더위를 식혀주기도 합니다. 세계 10대 축제답게 매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송크란 축제를 즐기기에 태국을 방문합니다.

한 번은 제가 송크란이라는 것을 까먹고 잘 차려입고 외출했다가 물벼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웃은 물론 핸드폰과 지갑까지 모두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송크란 축제 기간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외출 시 편안한 복장으로 나가고 핸드폰 역시 방수커버를 씌우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축제를 즐길 계획이라면 물총과 물안경을 준비해 가는 걸 추천합니다.

태국을 방문한다면 아시랑을 꼭 방문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딸랏토파이 랏차다(딸랏토파이2) 아시랑은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현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꼬치구이, 가리비구이, 메추리알 프라이, 크레이지 쉬림프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방콕 시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깔끔한 분위기에 현지 먹거리 체험과 쇼핑이 모두 가능합니다.

Tip) 태국 거주 30년 차 하정래 팀장의 여행 팁

- ▼ 날씨 건기인 11월~3월을 추천하고, 우기인 5~6월은 피하는 것이 좋다.
- ▼ 택시 택시 타기 전, 미터기 유무 확인은 필수! 동남아시아의 우버, 그랩(GRAB) 앱 이용도 추천한다.
- ▼ 식수 태국의 수도물에는 석회질 성분이 섞여 있다. 물을 마시거나 양치를 할 때는 구입한 생수를 사용하길 추천한다.
- ▼ 팁 태국은 팁 문화가 기본 에티켓. 팁은 20~100바트 정도가 적당하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품개선을 이뤄내다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세아제강 은상 수상팀

‘대경공장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프로젝트는 작년 한 해 동안 추진되었지만 사실상 공장 준공 이후 꾸준히 진행해온 숙원사업이나 다름없었다. 고정관념을 깨고 아이디어를 도출한 그들을 만났다.

Role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다

세아제강 포항공장 대경공장은 포항공장 내 유일한 아크용접(SAW) 강관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아크용접(SAW) 강관은 후판(Thick Plate)을 JCOE, 롤벤딩 설비 등을 통해 관 형태로 성형하고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통해 이음새를 매우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제작된 강관은 주로 석유, 가스 수송용 설비 등에 사용된다. 2013년 JCOE 설비를 준공한 대경공장은 롤벤딩 설비(6만t)와 함께 30만t 케파를 자랑한다. 세계 주요 오일 메이저사에 벤더(Vendor)로 등록되어 파이프를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대경공장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대미 쿼터제에 의한 수출 감소,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투입 시간 한정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이에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목표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여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행했다.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세아제강 은상 수상팀은 포항공장 생산 3팀, 생산기술팀, 선형연구팀, 설비보전팀, 4개 팀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비보전팀 심주현 대리는 팀원 구성과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은성수 팀장님과 김웅 공장장님, 김태우 대리는 생산 실적을 다각도로 분석·모니터링해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했으며, 진행 의견을 전달·조율하고 다른 팀원들의 업무도 지원해주는 멀티 플레이어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3팀의 권진우 전문직팀장님과 황형석·정의호 전문직주임님은 바쁜 생산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개선 아이디어 도출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생산 지원 활동을 통해 개선 후 빠른 안정화와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킨 일등 공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비보전팀의 심주현대리, 선형연구팀 이희재·천진열대리는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도출한 개선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심 대리는 팀원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성실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설비, 사무직-전문직 간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Idea

발상의 전환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다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용 최소화를 원칙으로 시작되었다. 김웅 공장장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경험적 지식과 자료 등을 찾아보고 조사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1 - 수상팀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 JCOE 설비로 강관을 제작하는 모습



“과거부터 용접 비드(용착 부분에 생기는 띠 모양의 불룩한 부분)를 3.0mm 이하로 낮추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에 그쳤습니다. 물론 작업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테스트하면 비드 역시 낮아지며 다른 회사에서는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생산성을 갖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논문이나 학회지에 나온 이론과는 정반대의 발상을 시도하여 비드 높이 저감뿐 아니라 용접 불량률도 현저히 내려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한두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건을 찾아서 이룩한 성과였죠.”

기본적으로 수요가 원하는 높이가 정해져 있고 그 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납품할 수 없다.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비드 컷팅을 시행했는데, 그러면 공수도 더 들어가고 현장 투입도 많기 때문에 시간과 단가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 공정에서 비드 높이를 낮춘 것은 투입 시간과 단가가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관공정 및 후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Bottle Neck)과 비효율성도 개선했다. JCOE의 마지막 단계인 익스펜더(Expander)공정에서 규격을 교체하는 동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상팀은 교체 시간을 단축해 설비 가동률을 높였다.

Competitiveness

제품 경쟁력에 기술 경쟁력을 더하다

대경공장은 JCOE 설비를 통해 외경 18"~64", 두께 9.0t~50.8t, 길이 6m~18m 길이의 아크용접(SAW) 강관을 생산할 수 있다. 그중 12m와 18m 아크용접(SAW) 강관이 주력 제품이다. 대부분의 강관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길이가 최장 12m인데 반해, 대경공장은 전 세계를 통틀어 3곳에서만 제작 가능한 18m 제품을 생산한다. 뿐만 아니라 세아제강은 제품 생산을 위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역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갖췄다.

생산3팀 황형석 전문직주임은 "최근 18m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2m 제품에 비해 18m 제품이 연결 용접 부위를 30% 줄여 작업이 용이하고 공기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들이 선호합니다. 저희도 이에 발맞춰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술팀 은성수 팀장은 세아제강이 경쟁사 대비 대구경 SAW 강관 분야에 뒤늦게 진출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핵심기술 개발과 제조 기술 표준화, 생산성 향상 활동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공정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 과거 세아제강이 누렸던 업계 챔피언의 위상을 견고히 제고하고, 경주하리라 확신한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3 - 대경공장에는 수상팀 팀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강관이 생산되고 있다.

세아제강에서 우리 팀은 000이다



생산기술팀 은성수 팀장

SAW 18m 라인을 보유해 대구경 강관을 생산하는 생산3팀이 세아제강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3팀 김용 차장

어려운 대내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세아제강의 '중심'이 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생산3팀 권진우 전문직팀장

우리 팀은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도 활력 있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생산기술팀 김태우 대리

우리 팀은 회사 미래를 책임질 팀입니다.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산3팀 황형석 전문직주임

강관사간 경쟁심화와 미국의 철강규제 등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팀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3팀 정이호 전문직주임

우리 팀원들은 더 나은 공장의 모습을 만들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 모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큰 꿈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설비보전팀 심주현 대리

설비보전팀 출신의 유능한 선배님들을 따라 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선행연구팀 천진열 대리

기술적 선점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서로, 진취적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행연구팀 이희재 대리

스마트폰을 통해 지식을 얻고 소통하듯 회사에서 우리 팀도 소통의 창구이자 지식 공유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조직 생활, 자기 개발, 인간관계, 처세술, 진로 고민, 외국 생활 등등 직장에서 겪는 세아인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세요. 13년 차 직장인이자 상담가인 최과장이 상담해드립니다. '최과장의 심리상담'에서 상담해줬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메일(seah_family@naver.com)로 보내주세요. 익명성이 보장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매달 3명의 고민이 실릴 예정입니다.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 드릴 예정이오니, 메일 하단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카운셀러 소개 | 최과장 (필명)

13년 차 현직 직장인,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업 후,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직장인 대상 심리상담서 「오늘, 내대신 출근 좀 해줄래?」 저자이며, 브런치에서 최과장의 직장인 심리생활(<https://brunch.co.kr/@sogangbest>)을 연재하고 있다.

Q1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저는 인원이 적고, 업무의 범위가 넓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보고, 제 직급보다 고차원적이고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알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죠.

다른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A. 많은 직장인이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고민님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 같네요. 그런데 한 분야만을 알아서는 그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분야를 자신의 분야로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눔고딕체, 티움체, 그린나래체' 등 이름도 모양도 예쁜 글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초창기 시절, 글씨체는 딱딱한 고딕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꼭 딱딱한 글씨체 하나여만 하지?" 그리고 그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에 아름다운 글씨체를 적용합니다. 그는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대학 시절 수강했던 캘리그래피 수업을 통해

글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개발한 매킨토시 컴퓨터에 예쁜 글자체를 적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극과 극이 통하듯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와 자신의 분야를 통합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전문가란 한 분야를 넘어 다른 분야를 넘나들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다양한 일들이 당장은 하고 싶은 전문 분야와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 중에는 훗날 나의 전문분야와 연결해볼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것이고, 당신의 분야를 더욱 혁신적이고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의 경험들을 나중에 나의 전문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Q2

회사에서 사람들이 제 흉을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 때를 아직 벗지 못한 3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두 달 전쯤 새로운 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회사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 안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니다. 한 직장 동료가 제 걱정이 된다며 얘기해주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로 계속 우울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요.



A. 많이 우울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정말 괴롭죠. 고민님이 생각하기엔 인사를 잘하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한편 억울한 생각도 드실 것 같네요. 그런데 실제로 고민님이 인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인사를 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인사를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소문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출근 전 옆자리 직장 동료가 무슨 옷을 입고 나올지 궁금했나요? 앞자리에 앉은 팀 동료가 오늘 점심으로 무얼 먹고 싶어 하는지 궁금한가요? 이번 주말 팀장님의 개인 일정이 궁금한가요? 아마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최근 들었던 다른 사람의 소문 중 기억 남는 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얼마나 관심이 가나요? 아마 없거나 있어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님이 자신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자신에 대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소문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최대한 소문에 의연한 마음을 먹으세요. 앞으로 인사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인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 대해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면, 참고할 것은 참고하되 너무 신경 써서 자신의 마음을 헤치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Q3

제 업무는 중요한 업무 같지 않아요

지원 부서에서 근무하는 5년 차 직장인입니다. 커리어 사춘기라 하는 '3년 차'도 무난히 잘 넘겼는데, 요즘 들어 '내가 하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동기 중 한 명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동기를 보면 열등감 아닌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가 하는 업무가 제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죠. 저도 좀 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사람은 보통 자기 관점에서 모든 일을 봅니다. 남의 일이 더 중요해 보이거나 남의 일이 더 쉬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효과죠.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는 그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면 내가 하는 업무가 하찮게 느껴지면 나도 웬지 하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말 그대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는지 더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정연식의 저서「원하는 삶이 어떻게 일이 되는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상경해 제가 처음으로 맡은 일이 복사였어요. (중략) 저는 복사할 때 종이를 대는 판,

덮는 뚜껑을 모두 약품과 걸레로 깨끗이 닦고 종이를 정확히 제자리에 배치한 뒤 복사를 했어요. 혹시라도 복사하면서 나오는 검은 점 등 잡티를 없애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스테이플러도 정확히 일정한 위치에 찍었지요. (중략) 사장은 “복사를 일처럼 정성스럽고 책임 있게 하는 직원이라면 무엇을 맡겨도 잘할 것”이라고 신뢰를 표하며 저에게 가고 싶은 부서를 물어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며 결국 임원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일을 해야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해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그 업무를 잘 수행해냄으로써 그 일을 중요한 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푹푹한
20대 연인이었다.

2012. 07 가원 7.17



2019. 05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는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예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사이
소중한 보물이 생겼다.

두 아이와 함께 다시, 경주를 찾다

세아 ESAB 장비팀 김지건 대리 가족

5월의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다. 천년의 고찰 불국사는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번 세아 패밀리의 주인공, 김지건 대리의 가족도 이곳을 찾았다. 그들에게 경주 불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1 -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김지건 대리 가족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었다.

부부의 추억이 담긴 장소

세아 ESAB 장비팀 김지건 대리와 아내 이가원 씨는 <세아가족>의 애독자다. 평소 '세아 패밀리'의 사연을 읽으면서 사보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김지건 대리의 가족이 이번 세아 패밀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들은 가족사진 촬영지로 경주 불국사를 선택했다.

"경주 불국사는 저희 부부에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2012년 7월, 여름 휴가로 함께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캠핑을 왔었는데, 그때 불국사에 들러 사진을 찍었죠."

아내 이가원 씨는 비가 내리는 불국사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했다.

"휴가 마지막 날 밤에 태풍이 왔어요. 당시 예약해 두었던 캠핑장도 태풍으로 야외 취침이 불가해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숙소를 찾기 위해 토함산을 넘어오는데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자욱한 안개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더군요. 그런 산길을 운전해 오면서 둘이 손을 꼭 잡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김지건 대리는 과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과거 사진 찍을 당시 저는 29살, 아내는 25살입니다. 지금 아내가 서른두 살이 되었으니 사진 속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사진 속 저희 모습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설렘 가득한 젊은이들이지만, 이제는 저와 아내 모두 제법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지건 대리 부부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4살이 된 큰아들 이한이와 10개월이 된 작은아들 이서와 함께 불국사를 다시 찾았다. 부부는 연애할 당시 이곳에서 사진 찍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올 것이라 상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둘에서 넷이 되어 와보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김지건 대리 부부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담기 위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사진을 찍는다. 당시 찍은 사진을 다시 보면 그날의 기분과 생각나는 일들을 곱씹어 볼 때 행복하단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아내 이가원 씨는 "이번 가족 촬영 역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랬지'라고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겠죠. 이렇게 넷이 함께할 수 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남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넷이 예쁜 사진 찍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지건 대리도 벌써 첫째가 사진 찍을 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장난칠 만큼 컸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하루였다며 촬영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지건 대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를 남겼다.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작지만 큰 소망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바른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다할 셈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죠. 지금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아빠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정확히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엄마·아빠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아닐까요? 첫째 녀석이 입버릇처럼 "한이가 엄마·아빠를 지켜줄게."라고 하는데, 사실 저 말은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엄마·아빠가 너희를 지켜줄게." 아이들에게 엄마·아빠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아빠에게 아이들은?



보물이자 선물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를 성장시키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감정들도 느끼고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면서 속상하고 힘든 순간들도 많지만, 아이들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항상 다짐합니다.

단순한 기능, 그 이상의 스테이플러



STAPLER

스테이플러를 단순히 종이를 묶는 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15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품질이 많이 개선돼 의료용 도구로 사용하거나, 농업 또는 건축 현장에서도 쓸모가 많기 때문이다. 스테이플러의 역사부터 쓰임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본다.



‘호치키스(Hotchkiss)’라 부르기도 하는 스테이플러(Stapler)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법한 사무용 도구다. ‘ㄷ’ 자 모양으로 생긴 철침을 박아 여러 장의 종이를 묶을 때 쓴다. 기본적으로 스프링 원리로 작동하며, 완성되기까지 급형, 열처리, 도금, 연마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친다. 주위를 둘러보면 종이를 묶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집이나 회사, 학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용 방법 또한 유치원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간단하다. 철침을 넣고 그냥 꼭 누르기만 하면 되니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스테이플러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스테이플러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가 정성 들여 만든 스테이플러에 왕실 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스테이플러로 법정 문서를 함께 묶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그 후 19세기 들어 종이 사용이 늘자 발명가들은 종이를 효과적으로 묶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1968년, 영국의 찰스 굴드는 잡지를 묶는 데 사용하는 철사 스티치 특허를 취득했다. 일정 길이로 자른 철사의 뾰족한 끝부분이 종이를 통과한 후 아래로 접히는 방식으로, 현재 사용하는 스테이플러의 직접적인 선조 모델로 통한다. 같은 해, 미국에서는 알버트 클레츠키가 하나의 큰 철침을 사용하는 스테이플러로 특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철침의 끝부분을 수동으로 구부려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스테이플러는 1879년에 미국인 조지 맥길리 선본인 스테이플러다. 이 제품은 종이를 한 번 묶을 때마다 철침을 하나씩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철침이 종이를 통과하는 순간 철침 끝이 구부러져 획기적이라고 평가받았다. 스테이플러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인 사무용 스테이플러와 대형 스테이플러는 물론 상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의료용 스테이플러, 건축 현장에서 물체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공업용 스테이플러 타카가 있다. 농업 현장에서도 과실수를 싸는 봉지에 사용하는 스테이플러, 곡물이나 비료가 담긴 부대를 묶는 데 사용하는 특수 스테이플러가 유용하게 쓰인다.

인류가 스테이플러를 발명한 지 어느덧 150년이 지났다. 구조가 단순한 도구이기는 해도 스테이플러는 그 안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예전보다 더 납작해지고 가벼워졌으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그림감이 좋아진 것만 해도 그렇다. 그 뿐만 아니라 플랫 클린치(평철침) 방식을 적용한 제품은 구부러진 철침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해 문서를 커레이 쌓을 경우 훨씬 안정적으로 높이 쌓을 수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스테이플러 성능은 철침과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아무리 잘 만든 스테이플러라도 철침의 품질이 떨어지면 종이를 제대로 묶지 못한다는 것. 철침은 끝단이 뭉툭하지 않고, 예리하고 매끈한 것이 알맞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스테이플러의 진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



세아 뉴스

세아그룹과 주요 계열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합니다.

| 세아제강지주 |



SSV (SeAH Steel Vina) 제2공장 준공식 개최

지난 5월 30일, 세아제강지주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 SSV 제2공장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이회령 부회장과 이주성 부사장, 남형근 대표, 베트남 정부 인사를 비롯해 주요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했다. SSV 제2공장은 구경 2~4인치 일반 배관재 및 유정용 튜빙 제품을 주력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지 파이프 생산 능력이 총 37만 톤으로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회령 부회장은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내수 판매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실현하여 SSV가 아시아 No.1 파이프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아베스틸 |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약 체결

지난 5월 22일, 세아베스틸-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장 어린이집 위탁계약식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16년 MOU 체결 후 약 3년 만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어린이집 설치 준비 건설팅부터 사후 위탁 운영까지 진행한다. 송영환 지원본부장은 근로자 자녀들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삶의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직장 어린이집은 경장동 복지센터 1층에 영유아 정원 44명으로 인가받아 올 9월 개원할 예정이다.

| 세아창원특수강 |

대구경 강관공장, 사우디 Aramco 벤더 승인

세아창원특수강의 대구경 강관공장이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사우디 Aramco로부터 Vendor 승인을 획득했다. 지난 6월 3일 세아타워에서 진행된 Aramco Vendor 승인식은 Aramco Asia Korea의 나와프 전무와 세아창원특수강 홍상범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했다. 특히 금번 인준은 사우디 정부의 현지화 정책으로 해외 업체의 신규 Vendor 등록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기술력과 양사의 긴밀한 신뢰 구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구경 강관 제품의 중동향 수출 확대 기회를 마련했고, 향후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Aramco Oil & Gas 프로젝트 수요 공략도 기대해 본다.

| 세아 M&S |



세아 M&S 창립13주년 기념식

세아 M&S는 5월 10일 여수공장에서 창립13주년 기념식 및 장기근속자 포상을 진행했다. 김충 생산부문장이 마정락 대표이사를 대신해 창립기념사를 발표하고, 10년 장기근속자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날 기념사를 통해 세아 M&S 중장기 목표 추진전략 및 2019년 경영방침 달성을 위한 실천 사항을 다시 한번 임직원과 공유했으며,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 세아 L&S |



소통강화 워크숍 실시

지난 5월, 세아 L&S는 전국에 흩어진 임직원들이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이는 화합과 소통의 장인 소통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회사의 경영실적, 주요 이슈 사항 등을 임직원 전체가 공감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임직원이 하나로 단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 세아 ESAB |



세아 ESAB 34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세아 ESAB 34주년 창립기념식이 5월 9일 창원 본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조규환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현재의 위기가말로 100년 기업을 향해 흔들림 없는 기반을 구축할 좋은 도전의 기회"라며 독보적인 품질과 생산성 구현을 통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근속 및 모범사원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사우 동정

세아제강

입사

윤소현 서울영업3팀

임유리 회계팀

양철혁 포항공장 업무지원팀

결혼

노승미 인사팀

이은경 군산공장 업무지원팀

출산

송경석 서울영업1팀

강동균 포항공장 선행연구팀

조의

한사진 경영관리팀(부친)

박광현 포항공장 생산팀(모친)

맹성호 포항공장 생산팀(모친)

세아베스틸

결혼

송유창 단산생산관리팀

김기현 동반성장팀

이태수 서울영업1팀

추명욱 인재운영팀

출산

임지혜 글로벌마케팅팀

구중모 서울영업1팀

송기윤 자금팀

강다형 공정연구그룹

조의

두정수 1제강팀(부친)

권규태 소형압연팀(모친)

이원경 1제강팀(모친)

반상화 제강설비팀(모친)

이봉식 압연설비팀(빙부)

권오현 대형압연팀(빙모)

이병규 설비지원팀(빙모)

세아창원특수강

입사

정영섭 3제강팀

신총식 영업기획팀

결혼

강대수 강관팀

구병욱 대형압연팀

김태현 가공설비팀

한재우 3제강팀

조진규 CS팀

한상훈 안전환경팀

김대환 설비지원팀

김규태 가공팀

박홍규 3제강팀

윤지호 강관팀

출산

이영근 품질보증팀

최성건 강관단조설비팀

조의

이영규 가공팀(부친)

홍순백 가공팀(부친)

오복석 DT추진실(모친)

정재두 안전환경팀(모친)

세아특수강

결혼

김영범 선재영업팀

출산

박성목 부산영업소

조의

윤한민 포스세아천진(빙부)

세아 ESAB

출산

이규혁 영업팀

조의

서성호 영업팀(부친)

세아메탈

입사

문재성 원주공장 품질팀

조의

서성문 창원공장장(부친)

세아 FS

입사

윤가영 인사기획팀

결혼

이혜영 업무지원팀

출산

정두호 가전영업팀

조의

김정민 생산/제조기술총괄(빙부)

김유현 인사기획팀(부친)

이은장 공무파트(모친)

세아 M&S

입사

이광준 영업팀

최경민 경영지원팀

출산

신창준 생산팀

세아 L&S

입사

진건희 강관영업1팀

결혼

이명환 군산영업팀

출산

이창욱 포항영업팀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박지훈 구매팀

나현주 개발2팀

조의

허종길 생산팀(부친)

윤강준 서비스팀(모친)

세아네트웍스

출산

김지웅 인재개발팀

세아 R&I

출산

문창희 경영관리팀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에 특별한 동거인이 있다? 강아지, 고양이,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이구아나 등등.

세아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매 호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 반려동물용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세아창원특수강 영업1팀 박수빈 대리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미소천사 '롤리'를 소개합니다



- 견종 : 포메라니안 🐶
- 성별 : 여아 🐱
- 특징 : 미소천사, 식탐대마왕, 눈썹 있음 😊

롤리는 말도 잘 듣고 영리하고 눈치도 빠른 아이입니다. 한 달 만에 “앉아”, “손”, “옆드려”, “돌아”, “하이파이브” 등 개인기를 습득했죠. 같이 함께해온 6년 6개월 동안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롤리는 여자아이이라 그런지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집에 꽃을 들고 오면 옆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어요. 호기심에 물어뜯을 법도 한데, 절대 물어뜯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있는 편이에요. 함께 나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강아지가 웃고 있어”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제가 바쁠 때면 산책하러 자주 못 나가고, 야근할 때면 저녁도 못 먹고 집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롤리한테 항상 미안합니다. 평소 잘 챙겨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려고 쉬는 날이나 주말에는 개린이(개+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애견 운동장도 가고 여행도 다니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롤리에게 한 마디하고 싶네요. “롤리아~! 개인적인 욕심이긴 하지만 별 탈 없이 쫓 지금 이대로 오래오래 옆에 있어줘~!! 우리 아직 같이해야 할 게 많이 남았어~!!”

📄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응모 방법

- 1 반려동물과 얹힌 에피소드를 8~10줄 내외로 작성한다.
- 2 반려동물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2~3장(1MB 이상) 고른다.
- 3 메일에 사연과 사진을 첨부하고, 개인 정보(소속, 직책, 이름)와 반려동물 정보(이름, 종류, 나이)를 함께 기재해 커뮤니케이션팀 이유헌 대리(yujin.lee@seah.co.kr)에게 보낸다.

📁 5+6월호 선물

그레이트독 접이식 욕조

